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제13강 :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족하심 - 빌립보서 4:10-23,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매튜 S. 하몬 박사가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13번째 강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족하심" (빌립보서 4:10-23)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연구의 열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 주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족하심"입니다. 빌립보서 연구의 마지막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4장 10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4장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복음서의 마지막 권면들을 되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기도, 염려, 기쁨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특정한 것들에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에서 발견하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명령들을 빠르게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4장 1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그 구조와 빌립보서 앞부분과의 유사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구조는 인정, 설명, 그리고 한정이라는 일련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를 인정하며 바울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한동안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바울은 자신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단, 바울은 선물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상징하는 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풍성한 선물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송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는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적어도 몇 가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약간 겹치는 어휘가 보이시죠? 빌립보서 1장 9-11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넘친다고 말합니다 .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풍족해지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 또한 12절에서도 풍족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의의 열매로 충만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공덕이 쌓이는 열매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에바프로디도가 보낸 선물들을 받아 자신이 풍족하게 공급받았고, 말하자면 충만해졌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1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하여"로 끝맺습니다. 또한 4장 20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립보서 전체의 큰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제 빌립보서 4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이제야 너희가 나를 향한 관심을 다시 보이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느니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셨지만, 그럴 기회가 없으셨죠. 제가 제 안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있든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 저는 너그러워질 줄도 알고, 겸손해질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도 압니다.

나는 풍요와 굶주림, 풍족과 궁핍을 모두 이겨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 제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너희 교회 외에는 나와 함께 주고받는 일에 동참 한 교회가 없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너희는 내 무릎을 위해 몇 번이고 도움을 보내주었다 .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광이 되는 열매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고,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에바프로디도를 통해 당신이 보내주신 선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을 받았기에 나는 필요한 것이 충분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영원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족하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0절부터 20절까지이지만, 4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마지막 인사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상대로 다시 한번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였노라”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뻐하라 “고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원 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원할 구체적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흥미롭게 제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선물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그래도”라고 말하면서 설명 을 덧붙이거나 조건을 거는 것이죠 . 그래서 그의 감사 는 다소 특이합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감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바울이 왜 이러한 단서를 달고 감사를 표현 하는지 ,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와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다시 관심을 보였고, 에바프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11절 끝부분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만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탐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만족이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확신을 갖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만족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의 만족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적든 우리의 상황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끝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인 자립 개념을 기독교적인 하나님 중심의 자립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듯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고대 세계에서도 알려져 있었고, 일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자립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목표, 달성해야 할 무언가로 여겨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립하여 언제든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립심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자립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악마의 거짓말입니다.

계속 이야기해 보자면, 바울의 소망은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13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내 만족에 의존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가 내 사역이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헌금을 해 줄지에 따라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움직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만족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풍족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감사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려는 것은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의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보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후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스템 구조의 한 버전에서는 의뢰인이 아침에 후원자를 방문합니다. 의뢰인은 후원자의 미덕과 관대함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원자는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후원자는 무엇을 얻을까요? 명예와 지위입니다. 고객이 많을수록 해당 문화적 맥락에서 더 높은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항상 그렇듯이, 누군가에게 돈이나 자원을 줄 때는 주는 사람, 즉 후원자가 그 자원이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후원자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권력 역학 관계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선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재정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재물을 주고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자이고 바울이 피후원자라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특별히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적 맥락이 그러했다는 점을 기억 해야 합니다 .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이해하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자이고 바울이 피후원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원자이시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피후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원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재정적 방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바꿔놓는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저는 이것이 그가 이 특정 부분 에서 거치는 인정, 설명, 조건부 해석의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단어, 즉 극단적인 두 가지 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

자신이 어떻게 낮아짐으로써 풍족해지는 비결을 배웠는지 이야기합니다 . 여기서 '낮아짐'이라는 표현은 신생활번역(New Living Translation)처럼 '궁핍 하게 살다' 또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살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그 의미를 잘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2장 3절과 8절, 그리고 3장 21절에서 겸손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같은 어족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어와 영어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서 이러한 관련 단어들 간의 연결성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연결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생각에 그는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2장에서 언급했던 '낮아지는 것'이나 '겸손한 상태로 사는 것'과 개념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가 말하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어를 사용한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고대에는 이 용어가 신비 종교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신비 종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신비 종교는 매우 비밀스러운 여러 종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종교에 입문하려면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전통적인 신들과는 동떨어진, 일종의 변두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비밀'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신비 종교에 입문하기 위한 입문 의식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 용어를 반드시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만족에 이르는 열쇠 또는 관문은 12절에서 그가 말했듯이, "나는 낮아지는 법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풍족해지는 법을 안다. 나는 풍족함과 굶주림, 풍요와 궁핍을 모두 경험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비결이 나옵니다. 풍요로움이나 부족함에 좌우되지 않는 삶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종종 잘못 적용하고, 마치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운동선수들이 운동화나 눈 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적어 넣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이나 주님을 향한 헌신의 진정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급하심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확신, 즉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욕구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따라서, 딱딱한 번역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번역하는 대신,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물론 이 번역도 가능하지만요.

이 구절은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풍족한 삶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더 큰 맥락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4절로 넘어가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특별함을 지적하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너희 외에는 나와 함께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가 없었다."

번째 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여러분은 제게 필요한 도움을 여러 번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 다음 행선지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난 그는 결국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너희가 내게 필요한 것을 여러 번 보내 주어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 매우 신중 했습니다 . 이는 부분적으로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 후원자와 피후원자 사이의 역학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는 자신이 후원자의 피후원자로 비취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대 세계에서 순회 교사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비교적 흔했다는 점 입니다.

그들은 마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공연을 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냥 다음 마을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전적인 선물을 받는 것을 매우 꺼려했는데, 선물을 주는 동기가 올바른지, 그리고 자신이 선물을 받는 이유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그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누군가에게 " 돈이나 음식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고맙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더 기도해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사랑하는 맏. 하지만 그게 우리 방식이야. 우리 문화에서는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상황이 정확히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 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점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 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관대했고, 바울에게 기꺼이 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에서 우리는 동역 또는 교제의 언어를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교회가 나와 동역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썼습니 다 .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코이노니아(koinonia)로, "너희 외에는 나와 주고받는 교제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물을 받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는 17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로를 위해 열매 맺기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로 인해 얻게 될 영적인 유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매우 조심 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이런 구절들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큰 금액을 제 사역이나 교회에 기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실 영적인 유익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목표는 그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대금을 받았고,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에바프로디도를 통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받았기에 나는 풍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선물을 회생 제물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보내신 선물은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의 역동성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피후원자, 즉 후원자라는 점을 언급했었죠. 바울은 바로 이 관점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당신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상황조차도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평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당신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것이 예배 행위이며, 이러한 나눔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눔을 통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지역 교회에 헌금할 때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헌금 을 단순히 ‘ 교회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 자원을 교회가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 그러므로 지역 교회에 헌금할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을 교회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신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충족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 보시다시피, 우리의 관대함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10%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90%는 너희가 가져도 좋다. 나는 10%만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과 자원이니 너희는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휴가를 가면서 물고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항을 가져왔고, 우리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는 등의 일을 맡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그때 꽤 어렸어요. 아마 다섯 살, 두 살, 혹은 여섯 살, 세 살쯤 됐을 거예요. 친구들이 휴가 간 동안 물고기가 죽을까 봐 아빠로서 엄청 걱정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아이들에게 “좋아, 이제 물고기 밥 줄 시간이야. 오늘 물고기 밥 줬니? 줬어?”라고 부드럽게 격려했어요. “아, 며칠 지났네. 물을 갈아줘야 해.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갈아줘야 해. 물고기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죽일 수는 없어.”라고 말했죠.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그들 에게 해명 해야 할 거야. 그들은 “우리가 잡은 물고기 좀 보여줘 봐”라고 할 게 뻔해.

잘 지내고 있나요? 만약 물고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생명도 없고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 동안 물고기가 죽었군요.

좀 우스꽝스러운 비유일 수도 있지만, 바로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잘 관리 해야 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주인에게 설명 해야 해.’라는 거죠.

우리의 자원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소득, 집,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 같은 것들도 해당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재산이나 자원이 풍부해서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할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는 관대함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바로 그곳에 착륙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인 표현이 송영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렇죠.

22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의 관대한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말인 2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부분들이 그다지 중요하거나 깊이 있는 내용이 없어 보여 대충 훑어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우리가 목상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다른 신자들의 인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미묘한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며 세계 곳곳, 혹은 국내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것의 큰 축복 중 하나는 이전에 만난 적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거나 그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공통된 믿음 때문에 이미 형성된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 세계에 고립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신자들을 찾아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특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문안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집안'은 로마 제국 관료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치 에 있지 않았다면 복음이 도달하기 어려웠을 지역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인사는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말을 위한 배경을 마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언급한 직후에 말이죠.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광과 함께 하기를”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닙니다.

이는 편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는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는 서신의 시작과 끝에서 모두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구절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에게 선교를 위한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에게 선교를 위한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분석한 다음 두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에게 선교를 위한 힘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 안에서의 그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따뜻한 인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데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거나 이해해야 할까요? 만족은 소유물이나 환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차, 더 좋은 휴가,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둘째,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에서든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 특히 부족하거나 궁핍할 때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궁핍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 절대적으로 정당 합니다 . 그런데도 바울은
풍족함과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성경적인 비결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소망.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지 매우
신중 해야 합니다 . 우리는 흔히 "아, 방금 나온 새 휴대폰이 정말 필요해."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걸까요?
어쩌면 정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존 제품이 10년이나 되어서 작동이 멈추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년에 새로 나온 제품을 구입했다면 , 정말 이 제품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걸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조언은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조언들보다 조금 덜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이 소유물이나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과 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빌립보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 빌립보서 공부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시 읽고, 묵상하고, 빌립보서에 담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데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광 함께 있기를
”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13
번째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족하심” (빌립보서 4:
10-23)입니다.